

11. 물의 흐름을 보고 물의 방향을 알 듯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 시대 방향을 알아라.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 설명 필요없어. 각각 나가니까. 됐지요? 어, 요즘 10대들 너무 잘 왔잖아. 진짜 간간한 말을 한다. 진짜 필요하다. 꼭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란말여. 약바르게 자기만 빠지지 말고 꼭 그렇게 하란 말여. 알겠어요? 이 말씀을 옛날에 30개론을 국민학생에게도 전했더니 그냥 따라오더라구. 나 학교 그만 둔다구. 내가 뭔가 될 것만 같대. 이제. 그럼 그런 사상을 주고, 그런 정신력을 주고, 그런 자신력을 주니까 금방 될 하잖아. 그 때 당시 그런 사람들은 따라다닌 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조금만 주고 말았어요.

왜? 충분하잖아. 개에게 말씀 다 줬으면 개가 옆에 큰 자가 되었다니까. 잘 보다가 고르고 고르다가 그래도 나를 “하늘을 기다렸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12번씩 쳐다봤다. 창문을 열고 쳐다봤다. 혹시 하늘에서 누가 올까. 나를 인도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사람이 걸렸어요. 나 인물도 안 봤어요. 인물도 안 보고 그냥 말씀 좋다고 해서 가르쳤어. 그런데 20년 따라오다가 없어졌어요. 뭐 연애하고 나갔다고 하대. 사람이 인물값을 하는 거 같애요. 인물값을. 인물대로 하는 거 같애. 인물값을 해야 되요. 여러분들, 인물이 좋잖아. 모두. 인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게 했잖아. 인물들을 나름대로 좋잖아. 정신적인 인물, 육적인 인물을 나름대로 본 거여. 작아도 간간한 인물 있잖아. 나도 그렇게 보고 뽑은 거 같어. 내가 이렇게 작아도 아주, 나도 알겠어요? 한 1미터 70, 1미터 80은 안되도 하나님께서 간간하니까. 다윗처럼 눈이 말뚱말뚱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물값하게 생겨서 뽑는 거여. 왜? 소질과 재질을 보고 뽑거든. 예수님도 사진을 가만히 보면 어느 때는 무서워서 안 쳐다봐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알롱거리고 잘 하면 웃으면서 쳐다봐지고. 내가 조금 거시기 하면 딱 “언젠가는 내가 한 번 쳐다봐야지.” 하고 쳐다보는 거 같아요. 그 때 눈총을 꼭 쏘는 거여. 자, 물이 흐름을 보듯이 말씀의 흐름을 보라고 했죠.

12.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가르침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 시대를 못 가르치면 안 된다.

구약 이야기나 하고, 신약 이야기만 하면 땀날 거기만 가는 거여. 구약 신약 생활만 하는 거여. 그죠? 그러? 안 그러? 시집 간 여자에게 남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다루고, 결혼한 여자들에게 남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냐? 축복가정 다르고, 캠퍼스 이야기 하고 다릅니다. 그 애길 좋아하니까. 축복가정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설교할 때 자기 얘기하면 그것만 팍팍 들어요. “여자는 이렇게 다루야 돼.”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다구. 그런데 캠퍼스는 잘 안 들어와요. 왜? 학문에 대한 것, “학문을 배우는 데 반드시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중고등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 시대를 가르쳐야 되요. 이 시대를 가르쳐야 한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 이 시대를 가르쳐 줘야 한다. 그 시대 종교역사나 종교지도자를 보면 뭘 가르치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남자나 여자가 사랑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있나보다. 사랑하나보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순 공부 얘기만 하면 애들, “순 공부하는 학생들이구나.”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여. 나무를 열매보고 뭘 나무인지 알 듯이. 여기서만 그런 이야기 한다구. 다른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감히 신부라는 소리를 못 하지.

그 다음에 주인이 종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종이 일할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헛갈리지 않습니다. 그죠? “모두 모여! 아침에. 종들 모여라!” 다 모였는데 “오늘은 너는 논갈어.” “너는 밭 다 갈어. 다 갈어. 오늘. 다른 거 씨뿌리지마.” 그래야 헛갈리지 않는단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그래야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많이 한다니까. 그러냐 놔두면 밭갈다가 풀해오다가 논두렁 깎다가 그리고 겨울철에 소 먹을 거 자르러 다니고, 그런단니까. 집청소 하다가. 아들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아버지가 오늘은 “내가 어디 갔다오니까 니가 알다시피 어머니 생일이 모레잖아. 뭘 좀 준비하라. 햄살 좀 준비해야 하니까 버를 좀 베풀라. 콩 좀 뽑아오고. 그리고 돼지 좀 미리 맞춰라. 소고기도 좀 미리 맞춰라. 갈비를 6짝만 맞춰라.” 이렇게 미리 미리 가르쳐 줘야 “네네.”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애인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일 좀 해주쇼. 당신이 이런 것 좀 해. 나는 이런

일들을 할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구. “가장 먼저는 뭘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라. 다 허락할테니까. 웬만하면 허락을 해 줄테니까. 그리고 너희들끼리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던 것을 다시 본인이 보고를 해.” 옆에 형제들이 보고 한 것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여. 본인이 직접 보고하면 아주 공정한 역사니까. 그러면 형제들이 보고한 거 있잖아요. 하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같은 사랑하는 신부 입장도 본인이 보고한 것 다르고, 여기서 보고한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나에게 보고를 해 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바로 연락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 바꿔놓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뭘 일 당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는데 나는 억울하면 다시금 나에게 올려라.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모든 전체를 사랑하는 신랑입장으로 대해주니까 이 편도 저 편도 안 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도록 하라.” 확실히 가르쳐 줬어요.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14. 그 날 일은 그 날 꼭 하라. 그래야 많은 일을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 날 일은 그 날 하라. 알겠어요?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 날 일은 그 날 하도록 하라. 못 하더니까 안 되더라구. 새벽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안 전하니까 안 되더라구. 새벽에 불을 켜지 못 켜든지 침침한 대로 해야지, 낮에는 햇볕이 들어와서 햇볕 이용해서 하려니까 안 되더라니까. 낮에는 영감이 날라가서 안 되더라니까. 설교는 영감갖고 하거든. 감각과 영감을 갖고 한단말여. 알겠습니까? 자, 그 날 일은 그 날 꼭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날 일은 그 날 꼭 하고 있습니까? 일기도 꼭 쓰고, 일기쓸 때 전부 어떻게 쓰시고 하니 문자 그대로 쓰면 안 되요. 나는 꽃을 좋아한다. 나는 꽃보다 나비를 좋아한다. 왜 나비를 좋아할까? 꽃을 좋아해야 향기를 맡는데. 벌을 좋아하면 꿀도 먹잖아. 나는 그렇게 쓴다구.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이녀석! 이상하네.” 한다구. 나는 개미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개미를 비유해서 쓰면 될 거 아녀. 그렇게 하면서 항상 비유와 상징으로 글을 쓰면 되요. 일기장, 남을 보여 주려고 합니까?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거지. 일기장 남을 보여주면 큰 일난단 말여.

선생님도 글을 쓸 때 그렇게 써요. 일기장에서 보면 글을 보면 다르게 써 놓는다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 풀을 때는 일기푸는 책이 있어. 뭘 말은 어떻게 해놔구나. 사람을 바위라고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여. 모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메일도 그렇잖아. 자기가 사용하는 메일을 내가 주는 메일로 쓰면 안돼. 내 메일은 1년에 한 번 편지가 와도 그 놈은 나한테만 통해야지, 다른 사람이라 통하면 안 된단 말여. 그나마 통해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를 통해서 온단말여. 직접 안 가요. 그래도 내가 가는 거여. 그래야지. 자기 메일을 써놓고 다른 사람 다 가르쳐 준단말여. 내 메일도 받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거기다 안 넣어준다구.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늘 글을 못 받아보는 거여. 꼭 그렇게 해야 되요. 알겠어요? 목사님도 그런 지혜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다 가르쳐 주고 교인들이 다 사용하는데 내 메일이 가는데, 다른 사람이 가는데 보고할 때 그 메일 사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일을 다른 사람이 알면 보고자가 죽이 되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지랄해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돼. 자기만 아는 완벽한 비밀, 자기 혼자만 알면 1급 비밀이여. 둘이 알면 2급 비밀이여. 아무에게도 메일을 주면 안 돼. 완벽하게 행하라고 했어요.

15.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일을 10분 빨리 해봐라. 그러면 10분 빨리 하면 30분, 50분 유익을 얻는다.

새벽에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면 30분, 50분, 비유를 들진대 아침에 10분 일찍 직장가보라구. 그러면 길이 안 막혀서 30분 이상 일찍 가지. 10분 늦게 가면 30분 더 늦어진다니까. 성질낼 것 없다니까. 그와 같이 새벽에 10분만 일찍 더 일어나라. 선생님도 어제 밤에 거진 1시 반, 2시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30분 밖에 잘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30분 자보자. 예수님 꼭 깨워주세요.” 그러고 잤어. 잤는데 자는데 기억이 다 나는 거여. 그런데 긴장되니까 기억은 다 나고 있어. 자면 큰 일난단말여. 4시에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압니까? 내가 4시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못 받아. 기도를 제대로 못 하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못 받는다니까. 말씀을. 기도를 제대로 해야 기도해서 말씀을 받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딱 자고 난 거여. 너무 졸렸던 게버. 완전히. 기도하다가 자버렸어요. 깊이 막 기도하다가 자버린 거여. 말씀이 끊어졌잖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끊어진 거여. 그래서 어제 말씀받은 걸로 하는 거여. 말씀이 끊어지면 못 합니다. 나는 끄집어내서 안 해요. 절대 하나님께 말씀받은 걸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말씀 받은 것으로

합니다. 어제 아침말씀 못 받은 거 있잖아.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는 거여. 잠언으로 받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잠언을 녹화해서 줄 거여. 여기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입으로 녹화해서. 잠언을. 여러분들이 새벽에 듣다 가다가 다음에 또 듣다 가더라도 또 들려주고 그래요. 틈틈이. 완전히 사람을 개조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걸 다 받잖아. “나는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여러분들도 표적을 일으켜야지. 그래서 이 때 들을 때 줘버려야지 이걸 가리다보면 안 되요. 그래서 직장갈 사람은 가고, 들을 사람은 듣고, 다음에 직장 갔다온 사람은 따로 또 틀어줘요. 됐죠? 자, 웃을 시간 없이 열심히 했네. 안녕. 바이바이! 내일 아침에 보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모두 잘 있어요. 네.